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Tess Scannell (미국 전 국가지역사회봉사단(CNCS) 시니어 봉사단(Senior Corps) 국장)

■ 자원봉사를 통한 고령자의 사회 통합

노년에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일을 계속 하여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인터넷 검색창에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입력하면 이 주장을 입증하는 대학에서 후원한 수많은 학술연구 결과가 화면에 뜬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자원봉사단체와 정부기관들은 고령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를 계량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인적 서비스, 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과 성과에 가치와 역량을 더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지만, 방대한 ‘결과물’ 기록(가령, 지도를 받은 학생 수, 준비한 식사 끼니 수, 심은 나무 개수 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증언 등과 같은 상식적 수준의 증거는 많다. 정부와 자원봉사단체는 모든 경제계층의 고령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을 이롭게 하는 이중의 사명을 지닌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고단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상적인 해결 방안은 현명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금 사용과 개별 고령자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무적이며 생산적인 기회 제공이라는 두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공공기금을 사용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인적 서비스, 교육 또는 환경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준을 강

화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가령, 아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수학 및 읽기 성적 향상과 같은 분명한 증거를 원하거나, 자원봉사자나 고령 근로자가 주도하는 ‘Bone Builders’ 운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고령자들의 유연성과 활동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고립을 완화하는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업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고령층이 참여하는 음악 밴드, 합창단, 바느질 모임은 훌륭한 사회화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공공기금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두 입장의 차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액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장벽을 제거’하는 이슈와 더불어 미국에서 자원봉사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일반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wage)’과 구분하기 위해 ‘수당(stipe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많은 저소득 고령자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지만 교통수단, 적절한 복장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갖출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저소득 고령자들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고 싶어한다.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당’을 받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노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5년 7월 개최된 오바마 정부가 후원한 ‘백악관 고령화 회의(WHCoA)’에는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약 200명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향후 10년 동안 고령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강한 노년(Health Aging)’이라는 대주제하에 ‘지역사회 및 시민 참여 증진(Promoting Community and Civic Engagement)’이라는 소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WHCoA의 최종보고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WHCoA에서 발간한 정책요약 보고서(policy brief)에는 1960년대 초반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개발된 정부 프로그램들도 여럿 언급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고령자의 자원봉사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서 여전히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시니어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SCSEP는 미국 노동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미국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및 업무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www.usdoleta.gov/seniors). 이 프로그램의 참가 조건은 55세 이상 실업자로서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1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미국 전체의 SCSEP 참가자는 약 90,000명에 이른다. 필자는 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국장을 지냈으며, 한 공공기관에서 8년간 재직하는 동안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당시 지역 프로젝트 국장으로서, 필자는 고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숙련, 능력 및 흥미를 평가한 후에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보육센터, 학교, 노인복지관, 푸드뱅크, 병원, 재활용 센터와 같은 지역 정부기관에 '알선' 하였다. SCSEP 참가자들은 평균 주당 20시간을 일하며, 미국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0년간 일한 경험을 근거로, 필자는 SCSEP가 많은 고령자들을 정규 노동시장의 고용으로 연계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SCSEP 참가자들이 일하는 자원봉사단체와 지방정부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일부 있다. 여기서 'SCSEP 참가자들이 특정 기간 후에도 노동시장의 일자리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강제 퇴출해야 하는가?' 라는 정책적 질문이 생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소득이 필요하고, 숙련 향상과 사회적 교류를 통한 이익을 얻으며, 자신이 활동하는 기관에 확실히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그들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미국 노동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취업알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가 1970년대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참가자들 중 소수만 '프로그램 외부'의 정규직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이 감독하기로 동의하는 한 원하는 만큼 해당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현재, 미 노동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참가자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SCSEP는 1960년대에 고용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고령자들의 고립을 줄이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적지만 절실한 임금을 제공하며, 자원봉사단체에는 가치 있는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hybrid)'로 창안되었다. 오늘날

에는 SCSEP를 참가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훈련과 경험을 얻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바라건대 자원봉사단체나 영리 기업 같은 정규 노동시장 일자리를 구해서 프로그램을 떠나야 한다. 고령자, 특히 저소득 고령자들의 고립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봉사단체의 목표 달성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SCSEP 모델을 검토하여 원래 프로그램의 하이브리드 성격이 한국 정부와 자원봉사단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 봉사단(Senior Corps)

시니어 봉사단은 사실상 ①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 Program: FGP), ②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 ③ 처음에는 ‘퇴직 시니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단순히 RSVP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RSVP 등, 3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상위’ 프로그램이다. 이 3개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연방기관에 편입되어 관리되어 왔다. 현재는 ‘국가지역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이라는 연방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명칭이 전형적인 연방정부 기관처럼 보이지 않아서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회 재정으로 운영되는 미국 정부기관이다. CNCS는 미국 전역의 지방정부 및 자원봉사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며, 이 지역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NCS 웹사이트(www.cns.gov)에서는 ‘시니어 봉사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시니어 봉사단은 현재 55세 이상인 사람들과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단체들을 연결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 코치 및 동반자가 되거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단체에 자신의 직업적 능력과 전문지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재능, 흥미 및 시간적 여력에 적합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받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창안된 시니어 봉사단은 현재 27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

을 사회봉사 기회와 연계합니다. 그들이 기부하는 재능, 지식, 경험은 미국 전역의 개인, 비영리단체, 종교 및 기타 지역사회단체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영광스럽게도 14년 동안 시니어 봉사단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2009년에 전미 시니어 봉사단(National Senior Corps) 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하는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기술한 내용이다.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FGP)은 앞에서 설명한 SCSEP와 함께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2만 5천 명의 고령자가 위탁 조부모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수요가 있는 아동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위탁 조부모는 학교, 병원, 소년원, 탁아소 등의 장소에서 주당 15~40시간을 일한다. 아동들의 읽기 학습을 도와주고 일대일 지도를 하거나, 문제 청소년과 미혼모에게 멘토가 되거나, 조산아 또는 장애아를 돌보거나, 학대 또는 방임 피해 아동들을 도와준다. FGP 참가자들은 SCSEP 참가자들이 받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지만, 원하는 기간만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규 노동 시장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압박은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고령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액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연방 기관이 의회 재정 지원이 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하원에 제출하는 문서인 ‘의회 예산 타당성 보고서’에서 FGP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FGP 자원봉사자들은 기타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인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FGP 자원봉사자들은 기타 자원봉사자 비교 표본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CNCS는 최종 자료가 회계연도 2017년에 수집되면 FGP 자원봉사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잠정적 이점에 대해 종적 준실험적 평가(longitudinal quasi-experimental evaluation)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은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FGP)의 거울상(mirror image)으로 1980년대에 신설되었다. 현재 약 1만 2천 명의 고령자가 미국 전역에서 시니어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다. 구조는 FGP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시니어 동반자는 주당 15~40시간 동안 (‘고객’이라고 부르는) 2~4명의 고령자가 요양원에 갈 필요 없이 자신

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한다. SCP는 고객들이 장보기, 공과금 납부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약 복용이나 가벼운 가사일을 하도록 상기시켜 준다. 대부분의 경우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고령자에게 친구가 되어준다. 또한 SCP는 고객의 가족이나 보호자들에게 잠시 돌봄을 중단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SCP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고객이 추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관찰하여 SCP 관리자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관리자들은 적절한 의료진 또는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추천한다. 지난 몇 년간 필자는 수백 명의 시니어 동반자 고객들과 그들의 가족 및 보호자들을 방문하였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시니어 동반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들과 나누는 우정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시니어 동반자를 ‘나의 천사’라고 묘사하였다. FGP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SCP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액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시니어 동반자는 저소득층이다. CNCS는 SCP 자원봉사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잠정적 이점에 대한 종적 준실험적 평가에 착수하였으며, 최종 자료는 회계연도 2017년에 수집될 예정이다.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전 퇴직 시니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중 하나로서, 미국 전역에서 55세 이상 약 23만 명이 약 627개의 지방정부와 자원봉사단체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다양성만큼이나 서비스 기회도 다양한데, 동네 순찰프로그램 조직, 불우 또는 장애 청소년 학습지도 및 멘토링, 주택 개조, 이민자를 위한 영어지도,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과 그 밖의 많은 활동들이 이에 포함된다. RSVP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활동 방법, 장소 및 횟수를 선택하며, 주당 활동 시간도 3~4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자신이 활동할 자원봉사단체나 정부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활동 기간 중에는 의료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이 적용된다. RSVP 자원봉사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지 않지만, 후원단체에서 교통비와 같이 활동 기간 중에 발생한 일부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RSVP 프로그램의 초기 시절에는 자원봉사자 업무가 주로 개별 활동가들의 희망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부 활동은 이후에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비되는 ‘오락활동(recreation)’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시니어 센터에서 합창단 활동, 단체 식사, 미술 및 공예

작업에 참여하는 일은 분명히 고령자들의 고립 완화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고령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봉사’ 예산이 아니라 고령자 고립 완화를 취지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1990년대 후반 CNCS는 ‘과급효과가 큰 프로그래밍(Programming for Impact)’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자원봉사단체들에게 단순히 자원봉사자들의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이고 상당한 과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봉사 업무를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방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지역 프로그램이 해당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봉사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의 필요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업무를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오늘날 CNCS는 RSVP 교부금 사업의 핵심 요소로서 ‘증거기반 프로그래밍(evidence-based programming)’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연방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평가(performance measures)를 시행하고 있다. RSVP 교부금 수혜기관으로서 2016년에 교부금 수혜를 연장하는 기관들은 ‘국가 성과 평가(national performance measures)’에 따라 추적 가능한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 지표에 연계하여 연방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서비스 분야로는, 재해 서비스, 경제적 기회, 교육, 환경 관리(environmental stewardship), 건강한 미래(healthy futures), 퇴역 군인과 군인 가족 등이 있다. ‘의회 예산 타당성 보고서’에는 2014년 RSVP 성과 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32만 9천4백 명의 퇴역군인을 위한 교통 및 취업서비스 안내, 약 7만 8천 명의 아동에 대한 멘토링, 주로 허약한 노인층 79만 7천 명에 대한 독립 생활 서비스, 2만 3백 명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휴식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퇴역군인 2만 1백 명을 RSVP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하였고, 추가로 1만 8천5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여 불우 계층 식사 배달 및 취약계층 아동 학습지도 등과 같은 RSVP 활동을 지원하였다.

RSVP 자원봉사자는 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않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에 3~4시간만 활동하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고령자들의 고립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봉사단체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형은,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엄격한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과급효과를 충분히 나타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특정 성과평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점점 유지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CNCS는 고령자들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로서, 시니어 봉사단 프로그램의 세 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위탁 조부모, 시니어 동반자와 마찬가지로 주당 20시간을 활동하였고, 수당을 받았는데 수당 수혜요건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지 않아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당 20시간으로 정의되는 집중적 활동을 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델은 고령자들의 고립을 완화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국가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이 모델은 연방정부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으로 주로 18~25세를 대상으로 하는 AmeriCorps에 속하여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경험봉사단’ 모델들은 일부는 아동지원에, 또 다른 일부는 고령자와 퇴역군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AmeriCorps 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2년만 활동할 수 있다.

■ 고령자의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현황

앞서 기술한 미국 정부 프로그램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고령자들이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통해, 또는 종교 관련 및 기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이웃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CNCS와 전미시민의식회의(National Conference on Citizenship)가 발간한 ‘미국의 자원봉사와 시민생활(Volunteering and Civic Life in America)’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봉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여전히 우선적인 관심사이다(www.volunteeringinamerica.gov).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에는 1천만 명의 고령자(24.2%)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녀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다른 연령집단의 참여율(25.4%)보다 약간 낮다.

주요 비영리단체 활동으로는 ‘Encore.org’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의 웹사이트(www.encore.org)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ncore.org'는 60세 이상으로 자신의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회적 혁신가들을 기리며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2005년에 '목적상(Purpose Prize)'을 제정하였다. 목적상을 통해 약 10년간,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를 실현하고 있는 약 100명의 변화 창조자(change-maker)에게 약 5백만 달러를 수여하며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있다. 2009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소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앙코르 펠로우십 네트워크(Encore Fellowships Network)는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서 새로운 과급효과가 높은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수백 명의 인재들이 미국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 "EncoreU" 프로그램은 미국 40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앙코르 개념을 상위 교육기관들에 적용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 학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앙코르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Purpose Prize' 수상자의 대다수는 기업이나 자원봉사 부문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에 자신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변화를 택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사회참여가 절실한 고립된 고령자는 아니지만, 이 모델은 유사한 활동에 예산 지원과 다른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의 정책결정자와 기부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수백만 명에 이르는 60세 이상이 퇴직 후 생활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일제나 기간제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노동부의 웹사이트(www.doleta.gov)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미국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고령자와 직장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평균 및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노동인구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경에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미국 민간 노동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0년의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또한 개별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 속해 있는 기간은 늘어나고 퇴직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전통적 퇴직연령인 65세가 넘는 근로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르면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7%

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지난 50년 동안 미국 정부와 자원봉사 부문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미국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자)를 포함하는 많은 고령자가 외로움과 고립을 겪는 우스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에든 비도시 지역과 저소득층에는 불안하고 고통받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고령자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진화를 거치면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며 모든 프로그램의 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각 프로그램은 한계를 지닌다. SCSEP와 시니어 봉사단 프로그램은 모두 외로움과 고립감 완화, 소득이전, 근무경험, 직업훈련 및 고령자 취업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역의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고령자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고령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곳의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지방정부기관의 역량을 높여주었고 수백만 명의 아동, 다른 고령자, 퇴역군인 및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는다.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는 고령자의 빈곤, 실업 및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령자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모델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KLI**